

# 차가운 미디어 속에서 사람을 만나다.

이승구

## 차가운(?) 미디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요즘의 TV 프로그램은 10년 전과는 정말 전혀 다른 모습이다. 과거에는 입에 올리기조차 민망한 이야기들이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고 있다. 드라마나 연예 오락프로그램은 자극적인 대사와 행동 그리고 자막으로 채워지고, 자신이나 타인을 비하하는 행위를 통해 억지웃음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다. 전반적으로 재미가 있으면 문제될 것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기존 방송 이외에 종합편성 채널이 새롭게 시작되면서 방송사 간의 경쟁이 점점 더 심해지면서 이런 흐름은 더욱 심각해지리라 생각된다. 자극적인 것에 길들여진 시청자들은 점점 더 강한 것을 기대할 것이고, 시청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미디어는 자극의 강도를 점점 더 강하게 만들어 갈 것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서로를 배려하는 따뜻한 프로그램을 기대하는 것은 욕심일까?

귀로 듣는 것은 3일 후엔 10%만 남고, 본 것은 20%, 듣고 본 것은 65%가 남아, 청각만 사용한 것에 비해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사용한 경우 6배 이상 기억한다고 한다. 이처럼 미디어가 인간의 기억에 미치는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다. 우리는 이런 미디어에 둘러싸인 채 살아간다. 버스를 타도, 지하철을 타도, 거리를 걸어도, 눈길을 닿는 곳마다 미디어가 자리를 잡고 있다. 그렇게 슬며시 우리에게 다가온 영상 이미지들은 소리 없이 우리 뇌에 저장되고, 결정적인 순간이 이르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동을 스스로 결정한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순간 착각일 수도 있다.

미디어는 중요한 만큼 위험하고, 위험한 만큼 중요하다. 진실한 반성이 필요하다. 그동안 미디어가 진실을 진실 되게 이야기했는지, 부분의 진실을 전부인 것처럼 포장하지는 않는지, 재미있으면



휴먼다큐멘터리를 감독할 때마다 갖게 되는 부담이 있다.  
영상을 통해 자칫 주인공의 삶이 미화되어 우상이 되거나,  
반대로 누구나 겪는 일로 여겨지는 감동 없는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열정이 앞서 무리하게 촬영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염려한다.



좋은 것이고 재미가 없으면 나쁜 것이라는 틀을 갖도록 하지는 않았는지 말이다.

### 휴먼다큐. 사람의 진성을 담는다.

다큐멘터리 장르는 재미가 부족한 이유로 소외당해 온 것이 사실이다. 방송되는 시간을 봐도 그렇고, 시청률을 봐도 그렇다. 그런데 다큐멘터리는 어느 장르보다 진성을 담고자 노력해 왔다. 현실 도피적 드라마나 오락 프로그램과는 달리 인간의 인생이 지닌 그 자체의 풍부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삶을 진지하게 대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 인생에 대한 진중한 이야기를 던져왔다. 또한 다큐멘터리는 폭넓은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해 왔다.

이런 이유 때문에 휴먼다큐멘터리를 감독할 때마다 갖게 되는 부담이 있다. 영상을 통해 주인공의 삶을 진실하게 표현하는 것이 쉽지 않다. 자칫 주인공의 삶이 미화되어 우상이 되거나, 반대로 누구나 겪는 일로 여겨지는 감동 없는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촬영으로 인해 가족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주지는 않을지, 열정이 앞서 무리하게 촬영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염려한다. 이런 염려를 하는 것은 다큐멘터리 장르에서 진실에 앞서 강조되어야 할 것이 촬영윤리이기 때문이다. 카메라와 감독이 주인공에게 어떤 의도에 서든 피해를 줄 수 있고, 또 하나의 폭력이 될 수도 있다.

### 2011. 대한민국 아저씨. 꿈꾸다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항상 가슴 설레고 떨리는 일이

다. 마치 연애를 하는 것 같은 기분이랄까? 그런데 최근 아저씨와 관련된 작품을 시작할 때는 큰 기대감이 없었다. 40대 아저씨들의 이야기는 이미 여러 차례 다루어졌고, 게다가 누가 아저씨들 이야기를 좋아할까 싶었다.

그런데 아저씨만큼 가슴을 울리는 이야기도 없다는 것이 작품은 마무리한 지금의 생각이다. 다큐멘터리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아저씨,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숨 가쁘게 달려왔다. 그런데 정신없이 살아온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힘겨워한다. 경제적 압박과 불안한 직장, 일상의 권태로움 등으로 몸과 마음이 지쳐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할 일이 많고, 살아가야 할 날도 많이 남아 있다. 그런 아저씨들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 삶의 횡포에 잃어버렸던 꿈을 찾아 나선다. 결코 쉽지 않은 그들의 도전 과정을 통해 오늘을 사는 보통의 아저씨들의 인생과 꿈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대한민국 아저씨로 사는 의미는 무엇인지 말이다.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살아온 아저씨, 그들은 가족들을 위해 온종일 생활의 터전에서 땀 흘리며 노력하는 하루하루 삶 속에서 그들은 꿈을 잊은 채 살았다. 그런데 지난 시절 청년의 꿈을 다시 꺼내 보는 것만으로도 아저씨들은 청년이 되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카메라를 통해 담아내는 동안 내내 가슴이 뜨거웠다. 젊음 가득했던 시절의 꿈을 향해 다시 도전하는 그들의 얼굴은 시간이 흐를수록 생기를 되찾아갔다.

특히 지금은 광주에서 식품 재료상을 운영하고 있는 고교 야구 스타 박기수 씨를 통해 큰 감동을 받았다. 박기수 씨는 초등학교 학년 때부터 야구만을 위해 살았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는 프로야구선수 시절, 연습 중에 무릎이 꺾기는 부상을 당해 연간 해오던 야구선수 생활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야구가 인생의 전부였던 그에게 은퇴는 죽음보다 무겁고 힘겨운 일이었다. 그런데 그렇게 인생의 큰 좌절의 순간 그에게 힘을 준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그로 인해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 그의 큰 형이 바로 그 한 사람이었다.

“그때 엄청 좌절했지요. 죽을 생각했는데 그때 형님이 아니었으면 죽었을 거예요. 형이 절 위로해 줬고 힘을 줬죠. 형님이 정말 고맙죠.라며 형에 고마움과 사랑을 표현했다.”

그는 은퇴 이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 달걀장사를 난생처음 시작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먹고 살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는데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렇게 힘들게 시작한 일이었지만, 가족을 위해 시작한 일이기에는 그는 묵묵히 견디어 냈다. 장사 시작한 지 1년 동안은 엄청나게 고생했다. 그 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며 지금까지 생업으로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가족들도 각자의 고단한 생활 가운데 대화는 거의 없는 상태, 일이 끝난

후 집에 들어오면 틀 보며 시간을 보내다 잠자리에 드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평범한 아저씨가 그의 모습이다.

하지만 그에게 야구에 대한 도전의 기회가 찾아왔다. 1년 경남고 대 군산상고 결승전 경기를 추억하며 그 경기의 주역들이 1년 만에 다시 볼게 된 것!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최동원, 김용희, 김성한, 김봉연 선수들을 필두로 전설의 선후배 선수들과 다시 경기장에서 뭉쳤다. 돈이 나오는 것도, 쌀이 나오는 것도 아니지만 바쁜 일상을 쫓아 연습하면서 난데없는 도전에 몸을 천근만근이지만 이상하게 마음만은 연애하는 기분처럼 들떠 있었던 박기수 씨. 그의 눈빛엔 고교야구 시절의 박기수가 되살아나 있었다. 그런 그의 모습은 모두에게 감동으로 전달되었다. 우선 옆에서 계속 지켜봐야 했던 나에게, 그리고 그들의 가족에게까지.

큰딸 경선 씨가 “예전에는 집에 가고 싶다 이런 기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아빠가 웃으니까 다 웃을 수 있는 거 같아서 좋고, 집에 오는 게 더 좋아진 것 같아요.”라며 가족의 행복이 다시 찾은 것에 정말 기뻐했다. 가족에 있어서 아빠가 변하는 모습이 가족 모두에게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그 사실은 누구보다 박기수씨가 느끼고 있었다. 박기수 씨도 매일매일 새롭게 변하는 자신과 가족들에게서 더욱더 새로운 힘을 얻는 것 같았다.

### **다큐, 사람을 만나다.**

‘아저씨’를 주제로 한 이번 작품을 시청한 이들의 반응에서 작은 희망을 보았다. 차가운 미디어가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낼 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희망이다.



**평범한 이들이 만들어내는 인생 이야기는 드라마와 달리 사람을 위로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이 시대에 여전히 존재하는 따뜻한 사람 사는 이야기를 더욱 열심히 찾아내야 한다. 차가운 미디어에서도 사람의 온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도록 말이다.**

“영상을 보고나니 요즘 들어 아빠에게 무관심했던 나의 행동을 반성하게 되었고 아빠한테 더 잘 해드려야겠다.” -권혜진 님-

“다큐멘터리 재밌게 봤습니다. 참 공감이 갑니다. 특히 아버지들이 집에 오면 아무도 안 반기고 혼자 인 것 같다고 할 때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항상 인 사만 하고 제방 가기만 바빴던 것 같아요. 아마 많이들 공감했을 것 같아요. 가장으로서의 본분을 다 하려고 자신의 꿈은 뒷전으로 하던 아버지들의 꿈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고 감동도 받았고 왠지 짝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재밌고 유익했던 다큐였습니다.” -차운호 님-

“아버지의 옛꿈이 궁금해졌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변하면 가정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싶어지네요.”

-김은진 님-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미디어는 사람 사는 이야기를 전달해야 할 책임이 있다. 평범한 이들이 만들어내는 인생 이야기는 드라마와 달리 평범해 보이지만 사람을 위로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점점 더 삭막해지는 세상이다. 진실한 이야기의 가치가 더욱 중요해진다. ‘차가운 미디어 속에서 사람을 만나다.’라는 제목처럼 이 시대에 사라진 것 같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따뜻한 사람 사는 이야기를 더욱 열심히 찾아내야 한다.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 그들의 이야기가 더 많이 자주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차가운 미디어에서도 사람의 온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한다.

폭발적인 반응은 아니지만 시청자들이 보인 반응 속에서 미디어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과제가 있음을 다시



이승구 PD는 다큐멘터리 전문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 사단법인 한국 독립 피디 협회 정회원 (PD 권익위원)이며 MBC에서 프리랜서 독립 피디로 활동하고 있다. MBC 메디컬 휴먼 다큐멘터리 닥터스, MBC 프라임 등을 연출했다.